

# 中醫學 概論書의 構成內容에 대한 比較 研究

최 환수

한의학연구소 기초연구부 의사문헌실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n contents of the book of an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Hwansoo Cho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and research, KIOM

In the literature study by the comparative method was carried out on the book of an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which was published in China, recent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ntents of the book was divided by Introduction, Um-Yang-O-Hang (陰陽五行), Qi-Hyul-Chinec(氣血津液), Jang-Bu(臟腑學說), Meridian(經絡), Et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This study did not treat the Ancient Chinese character hard to understand, methodology of traditional literature, and comparison to the western medicine.

【Key word】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 I. 緒 論

현재 11개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개론'이라는 과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론서는 한의과학생들이 충분하게 한의학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필독서라는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도 난해한 한문구절과 현대의학과 개념차이 등으로 학생이나 입문자에게 개론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서양의학에서는 개론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李符永 教授의 『「醫學概論」教育의 目標와 內容』<sup>1)</sup>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 의학개론서의 편찬전에 연구한 것으로 일본의 의학개론서에 대한 내용과 목적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 한의학계에서는 위와같은 한의학교육에서의 기초개론서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우선 中醫學의 연구가 활발한 中國에서 출간된 概論書 6種을 수집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II. 研究 方法

중국에서 출간된 中醫學 概論書 6種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것으로 현대의 한의학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6종의 개론서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표로 간략히 정리하여 알아 보기쉽게 하였으며 6종의 책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책명 대신에 일련번호를 사용하였다.

- ① 中醫學概要：宋桂琴·初航 主編<sup>2)</sup>
- ② 中醫基礎理論：孫廣仁 主編<sup>3)</sup>
- ③ 中醫學基礎：上海中醫學院 編<sup>4)</sup>
- ④ 中醫基礎理論：印會河 主編<sup>5)</sup>
- ⑤ 中醫基礎理論：印會河·張伯訥 主編<sup>6)</sup>
- ⑥ 中醫學概論：孟景春·周仲瑛 主編<sup>7)</sup>

1) 李符永. 『「醫學概論」教育의 目標와 內容』. 서울: 醫史學 제4권 제1호, 1995: 67.

2) 宋桂琴·初航 主編, 中醫學概要, 人民衛生出版社, 1989.

3) 孫廣仁 主編, 中醫基礎理論, 科學出版社, 1994.

4) 上海中醫學院 編,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5.

5) 印會河 主編, 中醫基礎理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6) 印會河·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89.

7) 孟景春·周仲瑛 主編, 中醫學概論, 人民衛生出版社, 1994.

### III. 本 論

#### 1. 中醫學 概論書의 目的에 관한 比較

5종의 책들은 목적에 대하여 다만 초학자에게 中醫學의 基礎理論을 교육하고자하는 것으로 記述하고 있다. 이외에 ④에서는 基礎理論의 重要性을 인식하여 이론을 임상에 연결시키고, 中醫學의 특징을 알고 現代醫學 지식과 연계하여 서로 다른 醫學理論의 體系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⑤는 中醫學의 基礎를 이해하여 醫學理論, 中藥學, 臨床科目의 基礎를 定立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 2. 中醫學 概論書 內容의 比較

本 論文에서는 概論書의 內容을 基礎, 生理, 病理, 診斷, 治療, 其他 등 6가지로 구분하여 比較 考察하였다. 이러한 6가지로의 내용분류는 醫學의 내용이 人體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를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이외에 내용을 기초와 기타로 처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6가지의 분류로 緒論, 中醫學에 대한 敍述과 陰陽五行學說 등은 基礎, 臟腑學說, 氣血津液學說과 經絡學說是 生理, 病因學說과 病機學說是 病理, 四診과 辨證理論은 診斷, 中藥學과 豫防 등은 治療,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기타로 분류하여 比較하였다.

표 1. 전체 내용에 관한 비교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基 礎	陰陽五行	○	○	○	○	○	○
	中醫學 理論體系의 形成과 發展		○				
	中醫學의 基本特徵		○				
	緒論(緒言)			○	○	○	○
	醫德						○
	人間과 自然						○
生 理	臟腑(藏象學說)	○	○	○	○	○	○
	氣·血·津液學說		○	○	○	○	
	經絡學說		○	○	○	○	○
	腧穴과 經絡	○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病 理	病因(學說)	○	○				○
	病機(學說)		○		○	○	
	疾病과 病因			○			
	病因과 發病				○	○	
診 斷	診法	○					○
	辨證						○
	四診			○			
診 斷	八綱辨證			○			
	氣血辨證			○			
	臟腑辨證			○			
	病邪辨證			○			
	外感熱病辨證			○			
治 療	中醫藥(藥物)	○					
	鍼灸法	○					
	鍼灸概要						○
	鍼灸治療	○					
	方劑	○					○
	常見證과 그 辨證治療(韓方病名)	○					
	常見證과 그 辨證治療(洋方病名)	○					
	豫防의 原則		○		○	○	
	豫防과 治療原則						
	治療原則과 治療方法			○			○
	豫防						○
其 他	體質學說		○				
	時病 概要						○
	內科 概要						○
	外科 概要						○
	婦人科 概要						○
	小兒科 概要						○
	傷科 概要						○
	眼科 概要						○
	耳鼻咽喉口齒科 概要						○
	推拿 概要						○
	氣功 概要						○
	看護 概要						○

基礎, 生理, 病理, 治療부분은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診斷부분은 ②·④·⑤는 記述하지 않고 있고, ①에서는 四診만을 說明하고 ③과 ⑥은 四診과 辨證을 모두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②의 체질학설과 ⑥의 時病·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傷科·眼科·耳鼻咽喉口齒科·推拿·氣功·看護科에 대한

臨床科의 概要내용을 다루고 있다. 基礎부분에서는 陰陽五行과 緒論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⑥에서만이 醫師의 倫理를 다루고 있다. 生理부분에서는 臟腑와 氣血津液, 經絡學說을 포함하고 있다. 病理부분에서는 病因과 病機로 나눌 수 있는데 病因學說은 ‘病因學說’이라는 명칭이외에 ‘疾病과 病因’, ‘病因과 發病’ 등으로 명칭하여 病因學說을 다루고 있고 病機에 대해서는 3種에서만 다루고 있다. 診斷부분은 ②·④·⑤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반해 ③에서는 中醫學의 전통적 방법인 사진보다 辨證을 강조하는 구성으로 편집되어 있다. 治療는 대부분 豫防이나 治療原則, 또는 이 둘을 같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各 內容에 대한 比較 考察

#### 3-1. 基礎

基礎부분은 陰陽五行學說과 其他 內容으로 나누어 比較하였다.

##### 3-1-1. 陰陽五行

표 2. 陰陽五行學說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陰陽學說	陰陽學說의 起源과 形成		○				
	陰陽		○				
	陰陽學說의 基本概念					○	
	陰陽學說의 基本內容		○		○	○	○
	陰陽學說의 基本的인 觀點			○			
	陰陽의 變化規則	○					
	陰陽學說은 中醫學에서 應用된다	○	○	○	○	○	○
	陰陽學說의 現代的 研究		○			○	
五行學說	事物屬性에 대한 五行分類	○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				
	五行		○				
	五行의 基本概念					○	
	五行學說의 基本的인 內容		○		○	○	○
	五行學說의 基本的인 觀點			○			
	五行의 生克乘侮	○					
	五行學說은 中醫學에서 運用된다	○	○	○	○	○	○
陰陽學說과 五行學說의 關係					○		
五行의 現代的 研究					○		

陰陽五行學說에 대하여 6種은 모두 ‘陰陽의 中醫學的 運用’을 다루고 있고 4種에서는 ‘陰陽의 基本內容’이 있다. 그리고 ②의 ‘陰陽의 起源과 形成’, ②와 ⑤의 ‘現代의 研究’ 등도 눈에 띈다. 五行學說은 6種이 모두 ‘五行의 中醫學的 運用’을 다루며, 4種에서는 ‘五行의 基本的인 內容’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事物의 五行分類’, ‘現代의 研究’, ‘陰陽과 五行과의 關係’ 등도 다루고 있다(표 2).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陰陽學說에서 ‘陰陽의 基本內容’에는 ‘陰陽의 對立制約’, ‘互根·互用’, ‘消長平衡’, ‘相互轉化’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陰陽의 基本的인 觀點’과 ‘陰陽의 變化規則’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곧 ‘陰陽의 基本內容’은 陰陽의 規則에 대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것은 ③의 ‘陰陽의 基本的인 觀點’에서 陰陽의 概念과 分類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陰陽의 中醫學的 運用’의 내용은 ‘陰陽이 人體組織構成을 說明’을 다루고면서 하고 中醫學的 生理, 病理, 診斷, 治療의 理論에서 運用되는 陰陽을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 ⑥의 ‘陰陽이 藥物의 性味를 歸納’한다는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⑥의 ‘現代의 研究’에서는 ‘陰陽의 基本概念’, ‘陰陽의 中醫學에서의 位置’, ‘陰陽의 歸屬問題’, ‘實驗研究’ 등을 다루고 있다.

五行學說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基本的인 內容’에서 ‘五行의 特性’, ‘事物의 五行屬性의 演變推理와 歸類’, ‘五行의 生克乘侮’를 다루고 있는데 ‘五行의 生克乘侮’내용중 ⑤의 五行의 相生·相克과 制化를, 五行의 相乘·相侮와 勝復를 비교하는 내용은 참고할만하다고 보여진다. ‘中醫學에서 運用’에는 臟腑間 生理·病理, 診斷, 治療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와 ⑥은 五行에 대하여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1-2. 其他內容

표 3. 基礎의 其他內容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緒論( 緒言)	中醫學 基礎의 主要內容			○	○		
	中醫藥學의 形成과 發展			○			
	中醫學 理論體系의 形成과 發展				○	○	
	中醫學의 基本特徵				○	○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緒論 (緒言)	中醫學 理論의 基本的 特徵			○			
	中醫學 理論體系이 唯物辨證觀				○	○	
中醫學 理論體系의 形成과 發展	中醫學 理論體系가 形成된 基礎		○				
	中醫學 理論體系의 確立		○				
	中醫學의 創立과 發展		○				
中醫學의 基本特徵	全體觀		○				
	辨證施治		○				
醫德	濟世救人 人愛爲本						○
	無欲無求 清廉淳正						○
	悉心施治 一絲不苟						○
	精勤不倦 虛心好學						○
	尊重同道 作風正派						○
	穩重端莊 慎言守密						○
人間과 自然	氣候變化의 人體에 대한 影響						○
	地方과 風土의 人體에 대한 影響						○
	人間의 自然環境에 대한 適應						○
	‘人間과 天地가 相應’한다는 理論의 實際的 意義						○

緒論에서는 中醫基礎理論의 內容, 中醫學의 歷史, 中醫學의 特徵 등을 다루고 있으며, ⑥에서는 獨특하게 醫師의 倫理와 자세,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보자들에게 中醫學의 전반적인 內容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③·④·⑤를 상세히 비교하여 보면 緒論에서 中醫學의 特徵으로 全體觀과 辨證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全體觀은 人間과 自然界의 關係에 대한 內容을 포함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바 있는 ⑥의 ‘人間과 自然’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외의 ②·③·④·⑤에서는 醫學의 歷史를 記述하고 있다. ⑥에서의 緒論은 醫學史에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 3-2. 生理

生理는 臟腑學說과 氣血津液學說를 하나로 묶고, 經絡學說과 ‘腧穴과 經絡’을 또 다른 하나로 묶어서 比較하였다.

## 3-2-1. 臟腑와 氣血津液學說

臟腑學說에 대하여 ③은 이는 人體 內臟은 臟과 腑 2大類로 나누게 되고 아울러 五臟이 爲主가 되고, 人體 內臟의 機能과 病理 表現을 闡釋하였다고 하였다. ④와 ⑤는 人體의 各 臟腑, 組織器官의 生理機能, 病理變化 및 相互關係, 또 臟腑 組織器官과 外界環境과의 相互關係 研究하는 學說이라고 정의하였다.

氣·血·津液學說에 대해서 ③은 氣·血·津液은 人體 生理活動의 基本的인 物質로서 氣·血·津液의 理論은 人體의 氣·血·津液의 生成, 代謝와 調節 등의 原理, 그리고 氣·血·津液 失調로 發生하는 病理變化를 記述한다고 하였다. ④와 ⑤는 人體를 構成하는 基本物質이고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시키는 物質的인 基礎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氣·血·津液의 生成, 運行輸布, 機能과 이들사이의 相互關係, 이들과 臟腑와의 關係를 說明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두 學說은 中醫學 理論體系에서 가장 重要한 部分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臟腑와 氣血津液學說(I)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臟腑學說	五臟	○	○		○	○	○
	心(附 心包④)			○			
	肺			○			
	脾胃와 腸			○			
	肝과 膽			○			
	腎과 膀胱(附 命門④)			○			
	六腑	○	○	○	○	○	○
	奇恆之腑		○		○	○	○
	臟腑사이의 關係	○	○		○	○	○
	氣·血·津液	○					
氣血津液	精·氣·血·津液						○
	氣		○	○	○	○	
	血		○	○	○	○	
	津液		○	○	○	○	
	氣·血·津液사이의 關係		○		○	○	
	氣·血·津液의 現代的 研究		○				

臟腑學說과 氣·血·津液學說은 6種에서 모두 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中醫學에서 이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만 ①과 ⑥은 臟腑學說에 氣·血·津液學說을 포함시켜 이를 다루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臟腑學說에서는 臟과 腑의 生理的인 理論을 記述하고 있는데 ③에서는 病理까지 포함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또한 이책에서는 臟과 腑를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表裏關係의 臟과 腑를 함께 說明하고 있는 점이 다르게 보인다. 氣·血·津液學說에 대해서는 대부분 氣·血·津液의 生理的인 面을 설명하고 있는데 ③에서는 病理까지 포함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특히 ②의 氣·血·津液에 대한 現代的 研究는 西洋醫學理論을 접목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3-2-2. 經絡學說과 腧穴과 經絡

經絡學說에 대하여 ③은 經絡은 人體 各各의 部分을 서로 聯系하는 길로서 內臟과 體表·孔竅·皮毛·筋·肉·骨骼 등의 組織을 連結시켜 人體를 유기적인 全體로서 이루어지게 하며 經絡 理論에서는 經絡의 循行部位, 經絡의 機能과 作用, 그리고 經絡의 病理 表現 등을 기술한다고 하였다. ④와 ⑤는 人體 經絡系統의 生理機能, 病理變化 및 臟腑와의 相互關係를 研究하는 學說이며, 12正經·奇經八脈의 基本概念·分布·走行과 交接의 規則·循行部位, 經絡의 生理機能과 經絡學說이 病理·診斷, 治療上에서 應用되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표 5. 經絡學說과 腧穴과 經絡(I)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經絡學說	經絡과 經絡의 系統		○				
	經絡의 概念과 經絡系統의 構成				○	○	
	12經脈		○	○	○	○	○
	奇經八脈		○	○	○	○	○
	12經別		○				○
	12經筋						○
	15絡脈(別絡·8)		○				○
	經別, 別絡, 經筋, 皮部				○	○	
	人體 各 部位의 經絡分布			○			
	經絡의 生理와 經絡學說의 應用		○		○	○	
經絡學說의 現代的 研究		○					
腧穴과 經絡	腧穴의 分類와 作用	○					
	取穴의 方法	○					
	14經脈의 循行과 常用하는 腧穴	○					
	經外奇穴	○					

①은 오히려 經絡學說의 基礎理論에 대한 내용보다는 經穴學 내용으로 臨床科目의 내용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 12經脈, 奇經八脈, 經別, 經筋, 別絡, 皮部에 대한 내용과 經絡의 분포상황을 모두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 ②의 現代的인 研究, ④·⑤의 經絡系統의 構成과 概念, ②·④·⑤의 經絡學說의 應用面 등은 經絡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3-3. 病理

病理學說에서는 임의로 病因과 病機學說을 묶어서 比較하였다.

病因學說에 대해서 ③은 病因이란 病을 發生시키는 要素이며, 病因學說은 發病시키는 要因과 疾病 發生의 原理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④와 ⑤는 各種의 病을 일으키는 要素의 性質·特徵과 그 發生되는 病症의 臨床表現과 疾病의 發生을 人體 內外環境의 失調로부터도 說明하였다고 하였다.

病機學說에 대해서는 ④와 ⑤에서 疾病의 發生, 發展과 變化하는 規則으로서 各種 疾病의 發展, 變化하는 一般的인 規律과, 主要한 邪正盛衰, 陰陽失調, 氣血失常, 津液代謝失常, 內生‘五邪’와 臟腑經絡病機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표 6. 病理學說(I)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病因	發病의 原理						○
	治病의 要所						○
	六淫	○	○				
	癘氣		○				
	七情	○					
	七情內傷		○				
	飲食의 不節制와 勞動의 不節制		○				
	外傷		○				
	痰飲, 瘀血		○				
	胎傳		○				
	其他 要所	○					
病因學說의 現代的 研究			○				
疾病과 病因	病因			○			
	發病의 原理			○			
	疾病의 發展過程中的의 2가지 矛盾點			○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病因과 發病	病因				○	○	
	發病的 原理				○	○	
病機	發病的 原理		○				
	病機		○				
	邪正盛衰				○	○	
	陰陽失調				○	○	
	氣血失常				○	○	
	津液代謝失常				○	○	
	内生五邪				○	○	
	經絡病機				○	○	
	臟腑病機				○	○	

病因學說에 대하여 ①·②·⑥은 病因, ③은 疾病과 病因, ④·⑤는 病因과 發病이라는 名稱으로 論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發病的 原理(③·④·⑤·⑥, ②는 病機에 포함되어 있다)와 外因인 六淫, 內傷인 飲食傷과 七情傷, 그리고 其他 要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病機學說에 대해서 ①·③·⑥은 記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病因學說과 病機學說을 나누어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病因學說부분에서는 ⑥에서는 前述하였던 病因에 대하여 治病의 要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遺傳과 中毒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 다른 요소에 대한 것들은 모든 책에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發病的 原理에 대한 내용은 邪氣와 正氣의 關係와 環境要因을 다루고 있는듯 하다. ②·④·⑥에 볼 수 있는 痰飲과 瘀血은 현재에 中醫學의 病因論으로 研究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病機學說부분은 ①, ③과 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외의 ②·④·⑤에서는 邪正盛衰, 陰陽失調, 氣血失常, 津液代謝失常, 内生五邪, 經絡病機, 臟腑病機 등 대부분의 內容이 일치되며 ④·⑤는 더욱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4. 診斷

診斷方法에 대하여 임의로 四診法과 辨證을 묶어서 비교하였다.

診斷에 대해서 ③은 中醫學의 望·聞·問·切의 方法의 特徵, 脈診·舌診 側面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臨床의 資料를 收集하는 基本的인 方法일 뿐만 아니라 또한 辨證施治하는데 주요한 根據가 된다고 하였다.

辨證에 대해서는 ③은 5가지로 나누어 八綱辨證은 辨證方法의 綱領이나 곧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辨別하는 것이고 氣血辨證은 病이 氣分에 있는지 血分에 있는지에 따라서 氣虛, 血虛, 氣滯, 血瘀, 血熱 등의 病理變化와 그 治療原則과 治療方法을 辨別하는 것이다. 臟腑辨證은 하나의 系統的인 臨床的 表現, 각 臟腑의 生理, 病理 特徵과 臟腑間의 關係에 根據하여 그 주요한 病變이 어떤 臟과 腑에 있는지를 辨別하고 이에 따라 어떤 臟이나 腑의 陰陽, 氣血 失調의 狀況인지를 分別하고 이에 따라 施治하는데 根據로 삼는 것이다. 病邪辨證은 證候表現의 特徵에 根據하여 어떤 種類의 病邪로 病이 發生하였는지를 辨別하고 아울러 治療의 原則과 方法을 提示하게 한다. 外感熱病 辨證과 有關한 辨證施治는 中醫學속에서 傷寒學說의 六經辨證과 溫病學說의 衛氣營血辨證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7. 診斷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診 法	望診	○					○
	聞診	○					○
	問診	○					○
	切診	○					○
四 診	望診			○			
	聞診			○			
	問診			○			
	切診			○			
辨 證	八綱辨證	○					○
	臟腑辨證	○					○
	氣血津液辨證						○
	六經辨證	○					○
	衛氣營血辨證	○					
	三焦辨證	○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						○
八綱辨證	表裏			○			
	寒熱			○			
	虛實			○			
	陰陽			○			
氣血辨證	氣의 病症			○			
	血의 病症			○			
	氣血同病			○			

主要한 構成內容		①	②	③	④	⑤	⑥
臟腑辨證	心の 病症			○			
	肺의 病症			○			
	脾胃와 腸의 病症			○			
	肝과 膽의 病症			○			
	腎과 膀胱의 病症			○			
病邪辨證	風의 病症			○			
	寒의 病症			○			
	熱·火·暑의 病症			○			
	濕의 病症			○			
	燥의 病症			○			
	食積(食滯)의 病症			○			
	痰의 病症			○			
外感熱病辨證	六經辨證施治			○			
	衛氣營血辨證施治			○			
	六經辨證과 衛氣營血辨證의 關係			○			

②·④·⑤는 診斷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것은 四診과 辨證을 언급하고 있다. 辨證의 種類에 대부분 八綱, 臟腑, 氣·血·津液, 六經, 三焦, 衛氣營血 등의 辨證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만 ③에서는 病邪辨證을 추가하여 說明하고 있다.

아래에 이를 자세하게 비교하여 보면 四診法에서는 望診, 聞診, 切診은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 問診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辨證方法에서는 ①·③·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說明方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이 나타나고 있다.

### 3-5. 治療

治療部分은 治療原則과 豫防, 藥物과 方劑, 鍼灸, 病症에 대한 治療 등 4가지로 나누어 比較하였다.

治療에 대해서 ③은 治療原則은 疾病을 治療하는 주된 原則으로서 '治病必求於本'의 前提하에서 標本의 緩急, 邪正의 盛衰, 陰陽의 偏勝偏衰에 根據하여 急治·緩治·祛邪·扶正·陰陽의 調整 등의 治療原則을 分別·採擇하는 것이다. 治療方法은 疾病을 治療하는 구체적인 方法으로서 臨床에서 常用할 수 있는 것은 汗·清·下·

和溫·補·消·開竅·固澁·鎮納 등의 方法이 있다고 하였고 ④와 ⑤는 防治原則은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基本的인 法則이다. 豫防을 強調하는 것을 爲主로 하여 '治未病'을 主張하고 疾病의 發生과 發展을 制壓하는데 對하여 重要的 意義가 있다. 治療法則에는 '治病求本', '扶正祛邪', '調整陰陽'과 '因人, 因時, 因地制宜' 등 몇개 側面이 있다고 하였다.

### 3-5-1. 治療原則과 豫防

中醫學의 治療法은 4종의 서적에서 疾病의 豫防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방을 우선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豫防과 治療原則을 함께 논술한 것은 ②·④·⑤이고, 豫防만을 언급한 것은 ⑥이다.

아래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비교하면 治療原則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며 豫防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⑥의 五運六氣로 疾病의 轉變을 판단하여 豫防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채롭게 보인다.

### 4-5-2. 藥物과 方劑

①에서는 藥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中藥의 來原, 中藥의 採集·乾燥와 貯藏保存, 中藥의 炮制, 中藥의 機能, 中藥의 用法 등을 基本知識으로 설명하고 藥物의 分類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分類는 다음과 같다.

解表藥, 去風濕藥, 去濕藥, 清熱藥, 消導藥, 催吐藥, 瀉下藥, 去痰止咳藥, 溫裏藥, 理氣藥, 理血藥, 補益藥, 固澁藥, 平肝息風藥, 安神藥, 開竅藥, 驅蟲藥, 外用藥으로 구분하고 있다.

方劑에 대해서 ①은 方劑의 構成과 그 變化, 方劑의 劑型, 治法과 方劑 등을 基本理論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藥의 採集, 乾燥와 貯藏保存 : 採集, 乾燥, 貯藏保存

中藥의 炮制 : 炮制의 意義, 炮制의 方法

中藥의 機能 : 四氣五味, 升降浮沈, 歸經

中藥의 用法 : 配伍, 用量, 服用法, 用藥의 禁忌

方劑의 分類에 대한 說明은 다음과 같다.

解表劑, 去風劑, 去濕劑, 清熱劑, 和劑, 消導劑, 催吐劑, 瀉下劑, 化痰止咳劑, 溫裏劑, 理氣劑, 理血劑, 補益劑, 固澁劑, 息風劑, 安神劑, 開竅劑, 驅蟲劑, 外用劑

⑥은 方劑의 構成의 原則, 方劑의 加減 變化, 方劑의 劑型, 方劑의 用法, 藥量의 變化 등을 기본지식으로 說明하였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方劑의 加減 變化 : 藥味の 加減, 藥量의 加減, 劑型의 變化

方劑의 劑型 : 湯劑, 丸劑, 散劑, 膏劑, 丹劑, 酒劑, 藥露, 錠劑, 條劑, 線劑, 熏劑, 片劑, 沖服劑

方劑의 用法 : 煎藥法, 服藥法

方劑의 分類를 보면 解表藥, 涌吐劑, 清熱劑, 和解劑, 瀉下劑, 溫裏劑, 補益劑, 表裏雙解劑, 理氣劑, 理血劑, 去暑劑, 去濕劑, 去痰劑, 治燥劑, 治風劑, 開竅劑, 安神鎮驚劑, 消導劑, 固澀劑, 驅蟲劑, 治癰瘍劑 등으로 나누어 각 方劑들을 分類하고 있다.

#### 4-5-3. 鍼灸治療

침구치료에서는 침자법과 구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외에 ①에서는 「臨床에서 常見하는 病證의 鍼灸治療」라는 여러 症狀에 대한 鍼灸治療를 記述하고 있다.

#### 4-5-4. 病證에 대한 治療

①에서는 「常見證과 그 辨證治療」에서 여러 症狀에 대하여 辨證施治를 記述하고 있다.

#### 4-6. 其他

여기서는 體質學說과 각 分科에 대한 概要의 構成內容을 알아보면 體質의 概念과 體質學說의 形成, 體質의 生理基礎, 體質의 區分模型과 特徵, 體質學說의 應用, 體質學說의 現代的 研究 등을 다루고 있다.

##### 4-6-1. 各 科目別 概要

⑥에서는 各 分科(時病,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傷科, 眼科, 耳鼻咽喉口齒科, 推拿)는 概述과 病證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으며 氣功概要에서는 氣功의 原理와 作用, 練功의 方法과 注意事項, 適應證과 禁忌證 등이 있으며, 看護概要에서는 精神, 飲食, 生活起居, 服藥, 辨證에 따른 看護 등을 記述하고 있다.

## IV. 考 察

中醫學 概論書의 목적에 대하여 대부분의 책들은 입문자에게 中醫學의 基礎理論을 教育하고자하는 것으로 記述하고 있으나 中醫學 基礎理論을 教育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직도 중국에서는 개론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教育目的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中醫學概論書가 포함하는 內容은 緒論, 陰陽五行, 藏象, 氣血津液, 經絡, 病因, 病機, 診斷, 治療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이러한 概論書의 內容은 基礎, 生理, 病理, 診斷, 治療, 其他 등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緒論, 中醫學에 대한 敘述과 陰陽五行學說 등은 基礎, 臟腑學說, 氣血津液學說과 經絡學說은 生理, 病因學說과 病機學說은 病理, 四診과 辨證理論은 診斷, 中藥學과 豫防 등은 治療, 각 책마다 위에 포함되지 않는 內容은 기타로 묶어서 比較하였다.

緒論은 4種에서 中醫基礎理論의 內容, 中醫學의 歷史, 中醫學의 特徵 등을 다루고 있으며, 1種에서는 中醫學의 歷史, 醫師의 倫理와 자세,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른 1種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었다.

緒論은 입문하는 이들에게 歷史認識, 中醫學 學術史, 醫學의 學問的 特殊性, 醫師의 倫理 등을 教育할 수 있는 概論書중의 概論부분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陰陽五行學說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陰陽學說은 6種이 모두 陰陽五行의 內容과 中醫學에서 運用을 설명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陰陽의 規則인 陰陽의 對立과 互根, 陰陽의 消長平衡, 陰陽의 轉化 등과 中醫學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의 理論에서 運用되는 陰陽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陰陽學說이 古代의 東洋의 哲學的 分析方法을 醫學에 實用化한 것이므로 陰陽學說의 起源과 形成, 陰陽과 五行의 關係, 現代의 研究와 같은 이에 대한 內容과 現代의 研究성과와 方向 등을 밝혀주는 內容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

五行學說에 대해서는 4種은 五行으로 事物의 分類, 五行의 規則인 生·克·乘·侮와 臟腑의 生理·病理와 診斷, 治療 등 中醫學에서 運用되는 五行을 說明하고 있고, 2種은 五行에 대하여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하였다.



生理부분은 臟腑學說과 氣血津液學說을 하나로 묶고, 經絡學說과 ‘腧穴과 經絡’을 또 다른 하나로 묶어서 比較하였는데 臟腑學說에서는 人體의 各臟腑, 組織器官의 生理機能, 病理變化 및 相互關係, 또 臟腑 組織器官 등에 대하여 6種 모두 서술하고 있으며 氣·血·津液學說에서는 氣·血·津液의 生成, 運行輸布, 機能과 이들 사이의 相互關係, 臟腑와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經絡學說에 대해서는 5種은 12經脈, 奇經八脈, 經別, 經筋, 別絡, 皮部에 대한 내용과 經絡의 분포상황을 記述하고 있는데 1種은 經絡에 대한 설명보다는 經穴學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現代의인 研究, 經絡系統의 構成과 概念, 經絡學說의 應用面 등은 經絡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病理부분은 病因과 病機學說을 묶어서 比較하였는데 病因學說은 3종은 病因이라 하였고 이외에 疾病과 病因, 病因과 發病이라는 名稱으로 論述하였으며, 4종은 發病의 原理(1種은 病機에 포함되어 있다)와 外因인 六淫, 內傷인 飲食傷과 七情傷, 그리고 其他 病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病機學說에 대해서 3種은 記述하지 않았고 邪正盛衰, 陰陽失調, 氣血失常, 津液代謝失常, 內生五邪, 經絡病機, 臟腑病機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診斷部分은 3種은 診斷에 대한 언급이 없고, 四診法과 辨證法을 다루고 있는데 四診法은 望, 聞, 問, 切의 방법을 설명하고 辨證에는 八綱, 臟腑, 氣·血·津液, 六經, 三焦, 衛氣營血 등으로 나누었는데 1種에서는 病邪辨證을 추가하여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四診法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은 中醫學에 있어서 四診法에 대하여 傳統의 方法이든 西洋醫學의 方法이든 客觀的인 指標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治療부분은 3種에서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과 豫防을 함께 논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다른 2種에서 藥物과 方劑를 다루고 있으며 또 다른 1種에서는 鍼灸治療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외에 ②에서는 體質學說과 ⑥에서는 각 臨床各科에 대한 概要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②와 ⑤에서 언급한 각 내용에 대한 ‘現代의 研究’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현대과학적으로 연구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에게 전통적 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V. 結 論

중국에서 근간에 출간된 中醫學 概論書 6종의 내용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中醫學 概論書는 中醫學의 基礎理論을 개괄적으로 敎育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中醫學概論書의 서술내용은 대체로 緒論, 陰陽五行, 臟腑, 氣血津液, 經絡, 病因, 診斷과 辨證, 治療 등으로 구분하여 記述하고 있다.

基礎理論부분으로 中醫基礎理論의 내용, 中醫學의 歷史, 中醫學의 特徵 등을 포함한 緒論과 陰陽五行學說을 다루었으며, 生理부분은 臟腑學說과 氣·血·津液學說, 經絡學說을 설명하고 있다. 病理부분에서 病因學說과 病機學說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病機學說은 다루지 않은 책도 많았다. 診斷部分은 언급이 없는 책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四診法과 辨證法을 다루었으며 中國 전통방식의 四診法보다는 辨證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治療부분은 疾病의 豫防法과 治療原則을 다루면서 예방에 중점을 두었고 藥物과 方劑, 鍼灸治療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中醫學 概論書를 비교하면서 現代의 入門者에게 난해한 漢字의 해결과 原典에 대한 理解方法, 現代醫學과의 比較研究 등을 서술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위의 문제들을 보완해서 韓醫學의 傳統的 理論과 經驗을 기반으로 새로운 現代科學知識을 더하여 韓醫學을 理解하고 傳統을 認識할 수 있으며 韓國의 實情에 맞는 概論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1. 李符永, 「醫學概論」敎育의 目標와 內容, 서울: 醫史學 제4권 제1호, 1995.
2. 宋桂琴·初航 主編, 中醫學概要, 人民衛生出版社, 1989.
3. 孫廣仁 主編, 中醫基礎理論, 科學出版社, 1994.
4. 上海中醫學院 編,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5.
5. 印會河 主編, 中醫基礎理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6. 印會河·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89.
7. 孟景春·周仲瑛 主編, 中醫學概論, 人民衛生出版社, 1994.
8. 白永波 : 全國中醫學院 試用教材의 編寫에 대한 回顧(譯抄), 大韓韓醫學會誌 第11卷 第2號, 1990.